

2024학년도 모의논술고사[인문·체육계]

1. 2024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

[논제 I]

[다]는 도둑 부자 이야기를 빌려 진정한 배움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도둑질도 곤경에 처해서 빠져나오는 기술을 터득한 뒤에야 천하제일이 되듯이, 공부도 지식을 전수받는 데 만족하지 말고 경험을 통해서 자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내용은 달리 평가할 수 있다. [가]는 중국 주나라의 예를 통해 백성은 무조건 가르쳐야 하는 대상임을 역설한다. 좋은 정치란 백성을 가르쳐서 교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의 관점에서 볼 때 [가]는 일방적인 하향식 가르침과 통제를 내세우며 백성 스스로 경험하고 터득하는 길은 무시한다. 이렇게 가르치며 통제할 때, 과연 백성이 진정한 배움을 이룰 수 있을지 비판할 수 있다.

[나]는 학습이란 '가르치는 교사'에 의해 달성될 수 없고 학습자가 원해서 만족감을 느낄 때 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학습자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재촉이나 감독은 내적 반발심과 피로를 유발해 학습을 불가능하게 한다. 훌륭한 교사는 감독하는 태도로 배움을 방해하지 않고 학생이 원하는 일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이런 [나]의 입장은 통제적 하향식 가르침을 설파한 [가]와 다르다. 자득의 길을 강조한 [다]의 시각에서 [나]는 [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나]도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를 강조했을 뿐, 경험을 통한 지혜의 터득과 산 지식의 배움까지는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종합하면,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 통제적 하향식보다는 자발적 상향식이 긍정적이지만 남의 지식을 전수받는 데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곤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경험을 쌓아 자신의 지혜를 터득하는 자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881자)

[논제 II]

[라], [사]의 관점에서 [마], [바]를 비판하는 경우

[라], [사]는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조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교육의 본질은 개인의 기술이나 덕성 같은 요소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주체를 길러내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교육의 공적 기능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능력을 지닌 개인을 육성하는 데서 찾는다. [사] 역시 교육의 공적 기능을 옹호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공(公)은 시민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통치자나 수호자를 길러내는 문제로 요약된다. 한 국가의 정체(正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양육의 규범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교육자는 아이들에게 훌륭함과 같은 덕성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사]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국가를 위해 가장 유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라]와 [사]는 공통적으로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조한다.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마]와 [바]는 다음과 같이 비판될 수 있다. [마]에 따르면, 교육은 단지 지성만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성, 체력, 인성을 두루 갖춘 종합적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다. 학생들은 예술 수업으로 정서를 가다듬고, 체육 수업으로 건강한 신체를 훈련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을 겸비한 종합적 인재로 탄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지성, 감성, 인성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라]가 제시하듯 국가와 국제 세계에 책임감을 가지는 시민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인성중심의 교육을 받은 개인 또한 자신의 덕성을 더 큰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만 생각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한 자신의 시민적 책무를 망각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바]는 교육이 개인의 지위 상승에 필요한 지식과 훈련을 제공하고 인지능력을 향상시켜서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라], [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시각은 개인이 더 좋은 직업을 갖는 데 유리한 인지 능력만을 계발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통치와 수호와 같은 공동체적 덕성을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위험성이 있다. 공동체가 유지, 발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의 지위 상승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도 없다. (1,093자)

[마], [바]의 관점에서 [라], [사]를 비판하는 경우

[마], [바]는 교육의 사적 기능을 강조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교육의 본질은 개인에게 필요한 지식, 훈련, 감성 등을 제공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이다. [마]는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A 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지성만이 아니라 감성, 체력, 인성을 기르는 종합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 역시 교육의 사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사(私)는 직무에 요구되는 기술이나 인지능력을 말한다. 교육은 개인이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숙련을 길러주고, 인지능력 향상, 협업 능력 상승 등을 통해 개인이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바]에 따르면 개인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여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마]와 [바]는 공통적으로 교육의 사적 기능을 강조한다.

교육의 사적 기능을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라]와 [사]는 다음과 같이 비판될 수 있다. [라]에 따르면 교육의 본질은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이 아니라 한 개인을 민주적인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다. 법의 평등한 보호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내적, 세계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인 동시에 개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지식 없이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사]에 따르면 교육은 국가를 운영할 통치자나 수호자를 기르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자가 학생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덕’과 관련해서 가장 훌륭한 것이어야 하며, 학생에 대한 평가 또한 그가 통치자나 수호자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개인을 잠재적 통치자나 수호자로 간주하는 이러한 교육은 개인의 존재 이유를 집단의 보존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교육 이념은 공동체가 개인에 선행하였던 과거에는 가능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가장 우선시되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체주의적 교육 이념이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1,088자)

2. 2024학년도 모의논술고사문항 해설(출제범위 포함)

논제 I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적 패턴에 따른 [논제 I]을 출제하였다. 제시문은 교육의 본질과 역할을 하향식 가르침에서 찾거나 학습자 중심의 배움에서 찾는 내용의 지문을 다양하게 선별하였다. 현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 및 『사회·문화』의 범교과 학습에 등장하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전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발췌하였다. 제시문은 중국 주나라의 사례를 통해 백성은 무조건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에 따르면 좋은 정치란 백성을 가르쳐서 교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이러한 교화의 과정을 ‘교육’이라고 이해하면, 이 글이 주장하는 교육의 방식은 일방적인 하향식 가르침과 통제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미국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의 『단절의 시대』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에서 피터 드러커는 학습은 교사의 일방적인 가르침에 의해 달성될 수 없으며 학습자가 그것을 희망하고 만족감을 느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외부로부터의 재촉이나 감독이 오히려 학습자의 내적 반발심이나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훌륭한 교사는 감독하는 자세로 배움을 방해하지 말고 학생이 원하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은 하향식 가르침을 강조하는 [가]와 대조를 이룬다.

제시문 [다]는 국문학자 안영훈의 「배움: 끝이 없는 인간의 길」에서 발췌 및 수정하였다. 이 글에서 저자는 조선시대의 학자 강희맹이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 쓴 다섯 편의 글[훈자오설(訓子五說)] 가운데 하나인 「도자설(盜子說)」을 인용하여 진정한 배움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강희맹이 도둑 부자의 사례를 통해 단순한 가르침이나 모방을 넘어서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저자 또한 진정한 배움은 스스로 터득하는 자득(自得)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논제 I]은 제시문 [다]의 내용이 제시하는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의 입장을 평가하는 문제로, 교육의 가치와 본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성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논제 II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적 패턴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논제 II]를 출제하였다. 동서고금의 다양한 텍스트 가운데 교육의 본질과 역할을 각각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에서 찾는 텍스트에서 선별하였다. 현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 및 『사회·문화』 범교과 학습에 등장하는 교육의 특성과 기능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전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라]는 마사 누스바움의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에서 발췌 및 수정하였다. [라]는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글로, 이 글에서 저자는 교육의 본질은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 같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한 개인을 민주적인 시민으로 길러내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적·국제적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주적 시민의 육성을 통해 우리는 권력을 앞세워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세력에 맞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시문 [마]는 최유진·장재혁의 『세계 최고의 학교는 왜 인성에 집중할까』에서 발췌 및 수정하였다. [마]는 교육의 사적기능을 강조하는 글로,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A 고등학교의 교육 이념과 수업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의 기능이 단지 지성만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성, 체력, 인성을 두루 갖춘 종합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교육의 사적 기능을 강조하는 [마]는 인성 함양을 비롯한 전인적 능력의 계발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 획득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바]는 교육사회학자 김창환·변수용의 『교육프리미엄』에서 발췌 및 수정하였다. [바] 또한 교육의 사적 기능을 강조하는 글로, 교육의 역할은 민주시민이나 국가 통치자 양성과 같은 공적기능보다 개인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숙련 기술을 길러주고 인지능력 향상, 구체적 훈련 제공, 협업 능력 상승과 같은 능력을 계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 역시 [마]와 유사하게 교육의 사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사(私)는 직무에 요구되는 기술이나 인지능력 향상이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와 차이를 지닌다.

제시문 [사]는 플라톤의 『국가/정체』에서 발췌 및 수정하였다. [사]는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글로서 이 글에서 플라톤은 교육을 국가의 정체(正體)를 보존하는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교육과 양육에는 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은 단순히 개인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고 수호할 존재를 길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톤은 교육자가 아이들에게 훌륭함과 같은 덕성을 중심으로 가르칠 것을 권면하며, 그 때에만 아이들이 국가를 위해 가장 유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논제 II]는 그동안의 정형적인 유형에서 벗어나 네 개의 제시문을 제시하고, 입장이 같은 두 묶음으로 분류한 후 한 입장을 선택하여 그 입장을 요약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양한 제시문을 동일한 시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한 입장을 정하여 다른 입장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하였다.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제시문)	재구성 여부
『목민심서』	정약용	타임기획	2005	176-177	제시문 [가]	○
『단절의 시대』	피터 드러커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03	68-69	제시문 [나]	○
「배움: 끝이 없는 인간의 길」	안영훈	경희의료원보 프리포즈 398	2014	8-9	제시문 [다]	○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마사 누스바움	궁리	2011	63-65	제시문 [라]	○
『세계 최고의 학교는 왜 인성에 집중할까』	최유진·장재혁	다산에듀	2014	33-40, 107	제시문 [마]	○
『교육프리미엄』	김창환·변수용	박영스토리	2021	21-23	제시문 [바]	○
『국가/정체』	플라톤	서광사	2013	166-171, 242-247	제시문 [사]	○